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6호 2021년 09월 27일(월)/계간

발행인 · 황윤원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취임사

02 황윤원 총장님 중원대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말하다!

Campus News

03 제5대 총장 황윤원 박사 취임식 개최!
03 연극영화학과, 제39회 충북연극제 수상!
03 이진성 석좌교수, 공수처 자문위 위원장으로 위촉!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학과 신설 승인!
03 재학생들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이벤트 개최!
04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보 관리교육 평가 인증' 획득!
04 항공운항학과, '2021학년도 신입생 견장 수여식' 개최!
04 항공서비스학과 · 항공운항학과 학과 투어 프로그램 진행!
05 제12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05 임상병리학과 김진관 · 윤대위 교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선정!
06 임영삼 교수, 청주시 축구 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출
05 최상범 교수, 2021년 한국산학연협회 충북협의회 회장 취임
05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법 워크숍' 온라인 개최!
06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06 경찰행정학과, 경찰공무원 6명 최종합격!

Social News

06 승마교육원, 괴산군체육회 '2021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진행
06 국제교류원, 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 실시!
06 융합디자인학과,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 펼쳐

07 협약식

Life in JWU

08 09 신입생에게 물어봐! 뭣이 중원대
10 11 학교, 사진, 그리고 나 –JR 사진 공모전
12 이곳은 이용해봤니? – 숨은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 2탄

Our Story

13 방학을 알차게 보낸 학생들이 추천해주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
14 교수님들께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15 면접? 우리가 알려줄게 따라와!

Special

16 2022년, 새로이 여는 학과를 소개합니다!

Editorial & Debate

17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학습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8 심청은 과연 효녀일까?

19 발전기금

20 중원대학교 지도

황윤원 총장님

중원대학교의 새로운 방향을 말하다!

학먼대(Student First) · 가펴대(Open Chest) · 함커대(Grow Together)





안녕하십니까? 제5대 총장으로 부임하는 황윤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과 교육, 연구, 봉사 활동에 헌신해 주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중원대학교 총장 직무를 맡겨주신 존경하는 안성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2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중원대를 세워 주신 역대 총장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기형, 안병환, 김두년 세 분께서는 참으로 빛나는 중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무임승차를 하지만, 앞으로 많은 조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외국어대 김인철 총장님,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님, 홍기형 초대총장님, 이차영 괴산군수님, 정용덕 금강대 총장님,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님,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이용순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님,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면 언제나 열 일 제쳐두고 무조건 달려오시는 김국환 명가수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또한 축하를 위해 먼 길 불원천리하고 와 주신 저의 인생 도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요, 응원군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괴산 꽃집들을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주시며,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존경하는 중원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학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고통을 맞아야 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어 이제 대학의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시대적 정책과제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학도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도 싸워나가야 합니다. 실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북해어부들은 싱싱한 청어 운반에 메기를 집어넣고, 이병철회장은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메기를 피하려는 청어와 미꾸라지의 응전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무릇 생명계는 위기가 닥치면 긴장해서 더 큰 생존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문명의 발전에서 도전이 있어야 응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도약한다고 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외부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바로 '내부의 단합'이라고 했습니다. 문명소멸의 원인은 내부결함이지 외부공격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대학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러한 도전에 잘만 대응하면 어떤 고초도 놀라운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최두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꿈과 희망이며 대학의 존재 이유입니다. 중원가족 모두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조연들입니다. 미래의 주역, 중원대의 주역인 여러분이 빛나도록 무대 뒤에서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대학을 믿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중원에서 맘껏 뛰어주십시오.

친애하는 중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총장의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맡게 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의 건학이념에 바탕한 우리 중원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먼저대학(Student First), 학먼대'를 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고객이고, 학생이 상전입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듯이, 우리 대학은 학생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전국의 입시생들이 우리 중원대를 찾아오면 왕으로 대접받게 만듭시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모든 정성을 바쳐 그렇게 하십시다. 수요자중심이란 말은 이제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와 교직원은 수단일 뿐입니다. 총장부터 학생이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취업시장에서 애타게 찾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합시다. 우수졸업생은 우수입학생 유치의 밑바탕입니다. 훌륭한 졸업생이 훌륭한 후배를 추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 전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우리 중원대를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가는 '가펴대(Open Chest)'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에 기꺼이 웃으며 참여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멋진 캠퍼스에서 저는 이미 중원대 비상의 놀라운 기운과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대학'이라는 자격지심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원에서 세계의 중원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 봤자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납시다. 된다는 생각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냉철하게 인정하되, 생각없이 무조건 수용하지는 맙시다. 꿈은 현실을 바꾸라고 꾸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원대의 거친 현실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생전에 늘 "이봐, 해 봤어?"라는 말을 달고 사셨지요. 그는 모든 일을 90%의 확신과 10%의 자신감으로 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만 있고, 요행과 행운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고정관념이 바로 멍청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원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닦읍시다. 제가 먼저 삽을 들겠습니다. '안 된다'는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된다'는 오기와 자신감을 키워나갑시다. 흔쾌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캠퍼스의 활력을 살려내는 데 힘을 모읍시다. 10여 년 짧은 역사로도 우리는 이미 증명해 냈습니다. 중원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커나가고, 함께 키워나가는 상생 대학, 함커대(Grow Together)'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이 상생입니다.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인류를 이끌어 갈 지침이 바로 상생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함께 커나가고, 함께 키워나가는 대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총리가 방한해서 한국말로 또박또박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이 같이 걷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손잡고 키워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칡과 등나무는 숙주나무를 감아 오르는 방향이 서로 반댑니다. 칡은 왼쪽, 등은 오른쪽으로 싸우면서 오르다 결국에는 서로 엉켜서 숙주나무까지도 함께 죽습니다. 갈등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연리지는 뿌리는 각각이지만, 가지는 서로 합쳐져 한 나무처럼 자랍니다. 여기 괴산군 청천면에도 소나무 연리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은 중원대 연리지가 되기를 청합니다. 각자가 뿌리는 달라도 중원대라는 숙주를 키우기 위해 가지를 한데 묶어서 키워나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오늘의 중원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웃음에서 저는 이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총장이 아니라 머슴으로 부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내미는 손은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랑스러운 중원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더 나은 중원대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빌고, 우리 중원대의 놀라운 비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중원대학교 총장

황 윤 원

중원대학교, 제5대 총장 황윤원 박사 취임식 개최!

우리 대학은 2일 교내 상생홀(중강당)에서 제5대 총장 황윤원 박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이차영 괴산군수, 역대 중원대 홍기형, 안병환 총장, 안성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황 총장의 가족 등 내·외 인사가 참석하였고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내빈들은 온라인 줌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황윤원 총장 취임식 이후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윤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운영에는 구성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 대학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원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첫째, '학생먼저대학(Student First), 학먼대'를 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 △둘째,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가는 '가펴대(Open Chest)'를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 '모두가 함께 커나가고, 함께 키워나가는 상생대학, 함커대(Grow Together)'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황 총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새로운 비전을 갖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우리 대학의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자" 고 당부한 후 취임식을 마쳤다.

황 총장은 1981년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1983년)와 피츠버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1987년)를 받았다. 1986년부터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중앙대 행정대학원원장, 중앙대 부총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제39회 충북연극제 수상!

교수와 졸업생이 하나가 되어 빛낸 제39회 충북연극제 성료!



▲연극 '리모콘' 및 '후설'의 한 장면이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지난 3월 23일 제39회 충북연극제에서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출신이자 동 대학원 대학원생인 정하솔씨가 신인연기상을, 여자 우수상에는 졸업생인 유혜빈씨, 남자 우수연기상에는 연극영화학과 김진영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연극제는 올해로 제39회를 맞이하는 권위있는 연극제로, 충북연극협회와 청주시연극협회가 주관하며,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과 청주 예술나눔터에서 충북 지역 내 5개 단체가 참가하여 경연을 펼쳤다. 이번 연극제에서 단체상 은상을 수상한 극단 청예의 '리모콘'은 정하솔(졸업생)과 김진영(교수), 최원재(졸업생), 한정수(교수)가 함께 공연을 하며 사제 간의 아름다운 향연을 펼쳤다.

한편 지난해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던 신현주 교수가 참가한 작품인 극단 늘품의 '후설'은 제39회 충북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오는 7월,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과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편집부〉

이진성 석좌교수, 공수처 자문위 위원장으로 위촉!


경찰행정학과 이진성 교수

우리 대학 이진성(경찰행정학과)교수는 지난 4월 6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발표에 따라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우리 대학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공수처의 사건과 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칙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된다.

〈편집부〉

AI 의료공학과 · 스마트운행체학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학과 신설 승인!

우리 대학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첨단학과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번 첨단학과 신설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 증가를 대비한 교육부 정책으로 '2022학년도 첨단분야 학생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은 첨단학과로 AI 의료공학과, 스마트 운행체학과가 신설되며 각 정원 25명씩 50명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2022년 3월부터 승인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첨단학과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프라,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설학과 중 AI의료공학과는 공학과 의학 그리고 임상데이터를 결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응용 분야를 배우고 진단·치료·예후·재활 분야의 캡스톤 및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을 통해 AI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계, 지능형 로봇, 웰리스 및 바이오헬스 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스마트운행체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자율지능 제어 분야를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스마트비행체란 기계 시스템인 공중 운항 비행체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됨으로 인간이 조종하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하는 미래형 비행체를 의미하며, 일반 자동차에도 확장 가능한 분야이다. 인공지능 기초 및 핵심기술, 항공 유체구조, 계측제어 공학, 데이터공학, 자율주행 등에 대해 학습하여 자율운행체 분야를 선도할 리더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정문 사진.

〈편집부〉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보 관리교육 평가 인증’ 획득!

충북 소재 4년제 대학 중 최초 인증!



▲중원대학교 전경 사진.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학과장 이현주)가 한국 보건 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2020년 제1주기 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3월 18일에 밝혔다. 이번 평가·인증은 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구성의 제 요소 및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2023년도 입학생부터는 인증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10년 개설된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는 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원의 인증평가 결과 5개 영역(프로그램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운영, 학생, 교수와 교육환경) 60개 평가 요소에서 100% 충족하였음을 통보받아, 충북지역 소재 4년제 대학 중 최초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대학 보건행정학과는 우수한 보건 의료정보 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보건교육과 병원경영 등의 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미래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주 보건행정학과 학과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우리 학과가 미래 보건 행정 전문가 양성의 중추적 교육기관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학과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으로 보건의료정보 관리사와 보건 행정 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항공운항학과

‘2021학년도 신입생 견장 수여식’ 개최!



▲견장수여식을 한 신입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 대학 항공운항학과(학과장 박상용)는 지난 5월 13일 16시 본교 중강당(상생 홀)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견장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30여 명의 항공운항학과 신입생들은 이번 견장 수여식을 통해 학생들이 비행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직 조종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견장을 수여 받은 항공운항학과 한 신입생은 “이번 견장 수여식에서 제복을 입고 견장을 다는 순간 책임감이 느끼며 일원으로서의 뭉클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을 견뎌내는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 항공운항학과의 견장 수여는 견장에 새겨지는 줄이 늘어남에 따라 책임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로 2014년도 항공대학 신설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제주항공 캐빈승무원 체험 프로그램 참여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이경민)는 지난 5월 12일 본과 재학생 40명이 제주항공 본사를 방문하여 ‘제주항공 캐빈승무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제주항공 본사 시설 견학 및 채용 관련 안내, 항공사 업무별 다양한 서비스 체험, 승무원 교육센터와 시뮬레이터 견학, 제주항공 유니폼체험, 항공기 전문용 및 기내 비상장비 사용법 배우기, 실제 비행 중 기내 안전교육 및 승객 응대 화법 배우기 등의 업무를 몸소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지우(항공서비스학과 3학년) 학생은 “이번 체험을 마련해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 실습을 도와주신 현직 승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잘 준비해 현장에서 인정받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민 항공서비스학과장은 “재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전문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제주항공 유니폼 착복 체험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는 2015년 개설된 이후 우수한 승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항공사 산학협력, 해외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항공사 승무원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외 및 서비스 기업으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 항공운항학과

학과 투어 프로그램 진행!







▲항공서비스학과 · 항공운항학과 학과 투어에 참석한 학생들의 기념사진 및 체험 사진.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와 항공운항학과는 미래 항공인을 꿈꾸는 수험생 100명을 선발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매회 20명씩)에 걸쳐 학과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준수하며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본교 투어, 이미지메이킹, 학과복 입기 체험, 모의 면접, 기내서비스 체험, 선배와의 Q&A, 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시뮬레이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특히 모의 면접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해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재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합격 비결과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이연숙 항공대학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수험생들이 진로 탐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우리 대학 항공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항공 실습실을 이용하여 항공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입시 준비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학 항공대학은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으며, 우수한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항공사 현장실습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제12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학교 전면 사진.

위기를 기회로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우리 대학은 5월 4일 교내 중강당 상생홀에서 개교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보직자, 교직원, 주요 내빈 등 40여 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10년 근속상, 감사패 및 업무 유공 공로상을 차례로 수여했으며, 10년 근속상에는 △위정화 사회문화대학 행정팀장 외 32명, 감사패를 △신우식 한국예총 괴산지회장, 이어 업무 유공 표창은 2021년 입시에서 신입생모집에 기여한 12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수여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해에 간호교육 인증평가, 보건행정학과의 보건의료 정보관리 교육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무사히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유치, 교육부의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조정계획에 따른 AI의료공학과 스마트운행체학과의 정원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편집부〉

임상병리학과

김진관 · 윤대위 교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선정!



임상병리학과 학과장 윤대위 교수



임상병리학과 김진관 교수

우리 대학은 최근 임상병리학과(학과장 윤대위) 김진관·윤대위 교수가 2021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에 선정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연구 몰입을 장려하는 기초연구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임상병리학과 김진관·윤대위 교수는 지난 2018년에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사업으로 3년간 각 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연속적으로 3년간 각 1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본 연구과제는 임상병리학과의 우수한 교수진, 연구역량,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 김진관 교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연구 '수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 및 대사장애에 AMPK의 신호전달 체계의 역할 규명 및 멜라토닌을 이용한 치료효과 연구' ▲ 윤대위 교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으로 '수면무호흡증의 특징인 만성수면분절에 의한 히스톤 변형이 지질대사 이상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윤대위(임상병리학과 학과장) 교수는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학과교수 2명이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 연구과제는 수면장애가 유발하는 비만, 당 및 지질대사 이상의 기전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으려는 연구로 전세계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수면장애를 주제로 한 기초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 임상전문가 육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 수면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국내 유일의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호흡치료기를 제조하는 전문기업인 ㈜멕아이씨에스와의 산학협력 체결로 호흡치료 및 수면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과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지원받고 이후 2년간 매년 별도의 기부금 지원받을 예정이다. 〈편집부〉

최상범 교수, 2021년 한국산학연협회 충북협의회 회장 취임



산학협력단 최상범 교수

우리 대학 최상범 교수가 2021년 한국산학연협회 충북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한국산학연협회는 산.학.연 협력과 교류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8년 1월에 설립됐다.

2005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명실공히 중소기업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産(산)·學(학)·硏(연) 협력의 중심기관으로 대학과 중소기업협력센터·연구소·중소기업 등 230여 곳 전국회원 중 충청북도에는 11개 대학에서 산학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게 되었다.

최상범 회장은 "작년에 이어 한국산학연협회 충북협의회 회장을 함께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북지역의 산학연계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대한민국 창업 기업가정신'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와 청년공동체 활동 전문가로서도 충북지역에 다양한 창업컨설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편집부〉

임영삼 교수,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출



▲스포츠산업학과 임영삼 교수가 위원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임영삼(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4월 14일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는 청주지역 프로구단 부재와 시민들의 프로스포츠 이용에 대한 불만족, 지역 기반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하는 지역 기업인과 체육인들이 모여 '청주시 축구발전위원회'가 설립됐다.

위원들은 "청주시가 타 시도보다 재정적 후원과 관심도가 약하고, 프로축구 홍보 활동이 적다"며 "앞으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구 관계자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계가 중요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초대 위원장은 "청주시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고, 지역 축구 엘리트 및 동호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 교수진인 신진호·서동현·최용호 위원과 지역 기업인 안효진·육성수·김충구·정영석 위원, 축구협회 관련 김현주·남기영·윤지현·이세인 위원, 충북교육청 김진규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편집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법 워크숍' 온라인 개최!

우리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김남일)는 지난 6월 9일, 2회에 걸쳐 교원 대상 '교수법 워크숍'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최신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역량에 맞는 교수법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1회차 '학생지도를 위한 코칭프로세스 활용', 2회차 '똑소리 나는 알짜 코칭상담'이라는 주제로 (주)HR교육컨설팅 대표 이정민 강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 이번 워크숍은 각 회차별 주제의 선정 시 교육환경 변화와 전년도 교수법 워크숍에서 효율적 학생 상담기법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수법 능력 향상을 도모했으며, 강사 역시 주제와 관련한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섭외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대학 김남일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코칭프로세스 활용과 상담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원들에게 다양한 학생지도 관련 교수법 특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습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들에게 온라인에서 줌(ZOOM)으로 교수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 운동부는 최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관하는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고 5월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대학운동부 운영 환경 개선과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 우수 학생선수의 체계적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운동부 평가 등을 통해 결정된다.

우리 대학 운동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씨름, 골프, 축구, 승마, 태권도 외에 펜싱, 카누 등의 신규 운동부를 창설하여 7개 종목의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창설된 펜싱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 카누부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발 및 축구부 진필립(20학번 종교문화학과) 선수의 프로축구팀(K2리그) 부산 아이파크팀에 입단 성적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올해 지원사업비는 지난해 7,800만원에서 소폭 상승한 7,900만원이다.

운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훈련과 경기 참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노력으로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각 종목별 선수들이 더욱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경찰공무원 6명 최종합격!

우리 대학 경찰행정학과(학과장 한형서)는 최근 시행된 2021년도 전반기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김남영(15학번), 김현오(15학번), 양금오(15학번), 전휘수(15학번), 이주영(16학번), 이해리(17학번) 학우 등 총 6명이 최종합격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우리 대학은 경찰 채용시험 합격을 위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과 경찰공무원을 위한 고시원을 운영하여 무료 인터넷 강의와 모의고사 실시 결과에 따른 1:1 맞춤 지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의 밀착형 교육(CMP 멘토링 제도)으로 경찰체력연습, 경찰무도 등 실무와 실습 중심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한형서 학과장은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필기시험은 물론 체력검사, 인적성 검사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우수한 경찰 인력을 계속 양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Social News

승마교육원

괴산군체육회 ‘2021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진행



▲승마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승마교육원(원장 최상범)은 지난 5월 1일부터 괴산군체육회와 함께 지역 내의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2021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15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승마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괴산군체육회(회장 이완철)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기 15주), (후반기 15주)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승마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자존감 향상으로 학업에 대한 집중력과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승마교육원 최상범 원장은 “이번 괴산군체육회와 함께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밖)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소년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정서적, 신체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본 프로그램 이후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학생 선수 발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융합디자인학과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 펼쳐





▲융합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벽화 완성후 기념촬영 사진 및 벽화 완성 사진.

우리 대학 융합디자인학과(지도교수 이아람)는 괴산군 주최로 지난 5월 13일 괴산 동인초 앞 등하굣길 담벼락에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거리 조성을 위한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괴산 사랑 운동 안전 괴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린 벽화는 우리 대학 융합디자인학과 3, 4학년 학생 17명 참여하여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의 벽화를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어요’ 등의 교통안전 메시지를 표시했다.

이아람 지도교수는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도움을 주고 괴산 사랑 운동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협업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융합디자인학과는 괴산 사랑 운동 로고 제작, 칠성초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를 통해 괴산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국제교류원

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 실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산막이 옛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원장 전춘련)은 지난 6월 4일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코로나19로 참가인원에 제한을 두고, 신청한 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명소인 ‘산막이옛길’을 탐방하며 힘든 유학 생활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탐방하는 동안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웠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의미를 되새김은 물론 ‘산막이옛길’ 곳곳의 풍경을 촬영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학생 자신의 나라에 SNS을 통해 알리는 계기와 함께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에 참가한 한 유학생은 “한국의 자연환경 및 역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귀국을 앞두고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한 이번 문화탐방은 한국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춘련 국제교류원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탐방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국내 적응을 돕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2회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편집부〉

JWU Convention

JWU 협약식

(주)멕아이씨에스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발전기금 기탁식 진행!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3일 대학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국내 유일의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전문기업인 ㈜멕아이씨에스 (대표이사 김종철)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갖고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중원대 김두년 총장, 이혜경 의료보건대학장, 김진관 학생처장, 이지연 홍보 교류 실장, 윤대위 임상병리학과장과 (주)멕아이씨에스 김종철 대표이사, 이재원 부사장, 허삼영 멕헬스케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미리내승마클럽과 산학협력 협약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22일 대학 총장실에서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미리내승마클럽(대표 이광섭)과 승마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승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위해 학생 현장실습협력과 지원, 승마교육원 어린이체험 승마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승마 산업에 대한 교육 협력을 논의하였다.

경찰행정학과,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과 MOU 체결!

우리 대학 경찰행정학과(학과장 한형서)가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과 대학에서 지난 4월 14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 발전과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양측은 우선 입직 설명회 및 각종 특강을 통한 시험 관련 최신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사회복지학과, 괴산군 청천재활원과 MOU 체결

우리 대학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정명희)는 지난 4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마당이 운영하는 청천재활원에서 양 기관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 정명희 사회복지학과장, 김희찬 교수, 청천재활원의 박용규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양 기관은 △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자원봉사 교육 등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력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갖춘 예비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 발전을 위한 민 · 관 · 학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4월 30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괴산군, 괴산증평교육청, 충북승마협회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말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방안 강구 ▲말산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연구 ▲말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시설 상호활용 및 인적교류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말산업학과, 대한 장애인승마협회와 상호협력 협약체결!

우리 대학 말산업학과 (학과장 윤여경)는 지난 5월 12일 대학 총장실에서 대한 장애인승마협회(회장 오경택)와 재활 승마 인재 양성, 장애인 승마 인구 저변 및 승마대회 참가 확대 및 지역사회 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 개선 승마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선수 육성 △재활 승마 프로그램 관련 협력 연구 및 과제 진행 △장애인 승마 인구 저변 및 승마대회 참가 확대 △장애인 승마 심판 및 지도자 양성 교육 운영 상호 지원 등 다양한 승마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맞손을 잡았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5월 20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본부장 홍성규)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인력, 시설견학 및 기자재 활용 지원 △소속 구성원의 전문기술, 연구 및 교육 훈련의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6월 22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명해)와 '인재양성과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전문기술·연구 및 교육훈련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 보은군 속리산레포츠(주)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6월 24일 속리산 숲 체험 휴양마을에서 보은군(군수 정상혁)과 속리산레포츠(주)(대표 강대용)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원대와 보은군, 속리산레포츠(주) 간의 산림복지실현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미래지향적인 학문연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입생에게 물어봐! 뭣이 중원대



대학생 중 수험생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입생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듯 합니다. 다방면으로 깐깐하게 따져봐야 하는 대학선택의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JR이 2021년 신입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인프라,교육의 질,학과의 장점 등 신입생들의 솔직한 대학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기자 redcamplsa@naver.com

간호학과 21학번 이세민



Q. 본인 소개 및 본인의 학과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1학번 신입생 이세민입니다. 간호학과는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대상자와 치료적 돌봄 관계를 수립함으로 그들이 가진 건강 문제에 대하여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Q. 본인의 학과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머니가 아프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분들이 집에 오셔서 도와주신 적이 많아요. 그런 소방대원분들을 보고 저 또한 아픈 사람들과 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급구조학과도 생각했었는데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정적일 수 있는 응급구조학과보다는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나중에 응급구조 또한 할 수 있는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Q. 중원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의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중원대학교가 인프라나 취업률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장학제도와 혜택들 또한 많아 학교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택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Q.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교육의 질은 어떤가요?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였습니다. 실제로 타 학교 소식이나 주변에 얘기를 들어 봐도 녹화 강의 위주이고 교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지식수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중원대학교에 와보니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방역을 지키며 대면 강의를 하시거나 실시간 영상 강의와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교수님들이 이러한 시국에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타 대학과 중원대학교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외관과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책을 좋아해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크고 멋진 건물과 자연과의 외적인 조화가 아름다워서 산책할 맛이 나더라고요. 또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도 많고 잘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 같습니다.

Q. 인프라 (학식, 기숙사, 여타 여가 시설 등)에 대한 생각에 대해 말해주세요!

우선 기숙사에 대한 첫 이미지는 건물이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방 내부도 쾌적하고 관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학식은 3,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 사정을 잘 고려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학식이 질린다면 학교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중식이나 양식 등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Q. 학교의 전반적인 선후배 또는 동기들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 오래 지내지 않아서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학과나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 소위 군기라 불리는 부조리 형태를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동기들끼리도 서로 위해주고 친하게 지내서 분위기 또한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면 장점 같아요.

Q. 앞으로의 중원대학교를 통해 이루려는 본인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우선 열심히 공부해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9 구급대원이 제 꿈이어서 간호사로 2년 동안 근무하면 특채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시험에 한 번 응시해볼까 합니다.

Q. 대학 생활 중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는 하는 것이 있나요?

아쉽게도 중원대학교 동아리 중에는 농구 동아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농구 동아리를 개설해서 학생들과 가끔 만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농구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Q. 현재 중원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만약 본인이 중원대학교를 입학하려 하는데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재밌게 놀러 다니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데 주변 시설이 잘 안 되어있지는 않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북 괴산이라는 지역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학교 안팎에 있을 건 다 있으니 못 놀 거 같아서 고민된다.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고 좋아서 중원대학교 진학을 추천하겠습니다.

항공운항학과 21학번 김유정



Q. 본인 소개 및 본인의 학과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운항학과 21학번 신입생 김유정입니다. 항공운항학과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전공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 직업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육, 해, 공 항공기 조종사 또는 민간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파일럿들을 육성하는 학과이므로 4년 동안 항공 전공 분야의 심화 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과 사업용 조종사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마치도록 하여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졸업과 동시에 다양한 진로로 조종사의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Q. 중원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1, 2학년 때 파일럿에 관한 시뮬레이션 수업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덕분에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더욱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Delta Qualiflight Aviation Academy에서 비행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선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 중원대학교의 장학제도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입학할 때 일괄 지급되는 기숙사 반값 장학금과 입학금 면제 그리고 중원 우수 장학금 B형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항공운항학과 수석 입학으로 인해 비행 실습비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리트로 인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본인의 학과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는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학과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파일럿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 힘들 때 유튜브 영상 등을 보다가 파일럿에 관한 영상을 보면 설렜고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꿈을 키우게 되면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교육의 질은 어떤가요?

우선 전공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모두 학계에서 많은 인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런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전공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면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올 수 있게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도와주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양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양수업을 통해 인성 배양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교육의 질 측면에서 우리 대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Q. 본인이 생각하는 타 대학과 중원대학교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원한다면 4년 동안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자 차별점 같았고요. 학교가 넓고 편의시설이 다양하기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적다는 게 차별점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식이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메뉴 선택권 또한 다양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구나 싶어 좋았습니다.

Q. 학교의 전반적인 선후배 또는 동기들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항공운항학과 특성상 여학우가 아주 적고 21학번에서는 저 혼자만 여학우인데요. 고맙게도 동기 남학생들이 잘 챙겨주고 대해줘서 불편함이 별로 없기도 하고 여자 선배님들이 식사를 같이해주신다든지 학교생활을 돌봐주시는 것들을 미뤄보아 분위기가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학교를 통해 이루려는 본인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선 조종 장학생을 첫 번째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해군 같은 경우 3학년 때까지 지원 가능하고 공군 같은 경우는 여학생은 2학년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종 장학생을 첫 번째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선발될 때 시력이 아쉬울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더라도 중원대학교와 비행교육원을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민간 항공사에 들어가 파일럿을 업으로 삼으며 뿌듯함을 원동력으로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Q. 현재 중원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학교의 네임벨류와 상관없이 본인의 꿈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또는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며 생기는 원동력이 정말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러한 측면에서 학생들 위한 교육의 질이나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제도를 통해 여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저 또한 만족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중원대학교를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틀리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학과 21학번 방규식, 문하늘




Q. 본인 소개 및 본인의 학과소개 부탁드려요!

저희는 임상병리학과 21학번 신입생 방규식(사진 오른쪽), 문하늘(사진 왼쪽)입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인간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환자로부터 얻어진 검체를 물리, 화학, 유전학 및 미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배우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인체 해부학, 인체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등의 주요 전공과목을 배우는 학과이고 진로는 임상병리사나 관련 분야 연구원으로 진출 가능한 학과입니다.

Q. 중원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규식 저는 보건 계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학교 예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야 실습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중원대학교를 그러한 이유에서 추천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실습을 통해 학업 경쟁력을 챙긴 뒤 좋은 병원에 취직하기 위해 중원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문하늘 고등학교 때 입시상담을 받을 때 중원대학교를 추천받고 찾아보니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실습과 실험을 할 때 장점이 있을 거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해서 결정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원 우수 장학금 A형 혜택을 받고 학점 유지 시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교육의 질은 어떤가요?

방규식 일단 유능하신 교수님들에게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도 좋았고요. 아직 많은 강의를 듣지는 못했지만, 교수님들의 강의 방식이나 전문성이 이 학교를 오게 한 제 선택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하늘 강의 중간중간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중 놓친 부분에 관해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타 대학과 중원대학교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방규식 개설된 학과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시설에 대한 강점이 차별점 같고요. 종교에 대한 강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종교재단의 학교와의 차별점 같습니다.

문하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기숙사 장학금입니다. 주변 친구 중에서는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기숙사비를 반값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 같습니다. 기숙사 시설 또한 쾌적하고 골프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같은 내 외부 시설이 잘되어 있어 바람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차별점 같습니다.

Q. 본인의 학과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방규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어서 의료 관련 분야를 찾아보다가 자연과학과 의과학을 접목한 생명과학의 한 분야인 임상병리학을 알게 되었고 질병의 진단, 경과, 치료 효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제 적성과 잘 맞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하늘 저는 어린 시절 결핵에 걸려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결핵은 예전에는 약만 먹어서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었지만, 점차 약과 치료법이 발전함에 따라 요즘은 약만 먹어도 치료가 된다는 걸 알게 된 뒤 자연스럽게 임상병리학에 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과를 찾던 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추천받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인프라 (학식, 기숙사, 여타 여가 시설 등)에 대한 생각에 대해 말해주세요!

방규식 저는 헬스장을 사용해봤는데요. 외부의 헬스장과 비교해서도 뛰어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요. 헬스장 정기권 가격이 원래 비싸잖아요. 근데 중원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덕분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하늘 입학 전에는 학교 가서 음식이 잘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생각하다가 학생 식당과 카페테리아를 사용해보았는데요. 학식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할 만큼 가격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느꼈고요. 카페테리아의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식비나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Q. 학교의 전반적인 선후배 또는 동기들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문하늘 제가 보건실에 갈 일이 있어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뜻 본인이 가진 약을 나눠 주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선배나 후배들이 서로 위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들도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끈끈하게 뭉쳐서 생활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학교를 통해 이루려는 본인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방규식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들어온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전공 살려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고요. 이번에 학과동아리인 분자 생리 연구동아리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Q. 현재 중원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중원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시설과 바탕을 가진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대학 선택은 무엇보다 본인을 위한 선택인 만큼 많은 강점을 가진 학교를 지닌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중원대학교 또한 그중에 포함되어 있으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중원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JR 사진 공모전 |

학교, 사진, 그리고 나

저희 JR이 코로나로 인해 지루하고, 답답한 학교 생활에 지친 우리 학우 분들을 위해 열었던 사진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너무 멋진 사진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렵게 선정한 여러분들의 사진을 소개해드리고 선정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현복 기자 ne3h3b@naver.com





간호학과
21학번 홍아름

Q. 촬영한 곳의 위치와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기숙사 뒤편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촬영을 했어요. 룸메이트와 저녁 먹고 학교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워터파크 쪽으로 가는데 다른 곳 보다 훨씬 한적하고 탁 트여있는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하늘도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고, 달과 별이 그 풍경에 함께 담겨있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열심히 하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다 한 10분이 지났나? 건물 앞에 있던 가로등 불빛이 탁! 하고 켜진 거예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너무 로맨틱한 풍경에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Q.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사진 색감이 가장 아름다워요! 따로 후 작업을 하셨나요?

학교에서 보는 밤하늘 별들이 굉장히 밝고 예쁘잖아요. 근데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 별들을 세세하게 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보자 하고 별들이 반짝이는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색감 보정만 하는 편이고 다른 추가적인 작업은 안 하는 편입니다.

Q. 사진을 잘 찍는 본인 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풍경과 사람 또는 사물 등 피사체가 반반의 비율로 사진 속에 담고 사진 크기는 1:1 정방형으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찍어야 안정감도 들면서 예쁜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Q. 저희 JR 사진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새내기로써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기숙사 건물에 붙어 있던 홍보 포스터를 보고 평소에 좋아하는 분야라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보면 훗날 새내기 때 이런 이벤트도 참여했었지~ 하면서 회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라떼스러웠나요?(웃음)

Q.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평소에 사진 촬영이나 작업을 많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없었어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학보에 사진이 올라간다니 모두가 제 사진을 보고 우리 학교를 더 예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정비학과
16학번 김민수

Q. 촬영한 곳의 위치와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이 사진들은 학교 운동장에 위치한 분수대와 학교 족구장 옆 골프장에 Water hazard가 하나 있습니다. 분수대는 많은 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 골프장도 시간 나면 한 번씩 둘러보세요! 저는 밤에 별 사진 찍는 것을 유독 좋아해서 불빛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야 별이 잘 보이고 사진에도 잘 담기거든요. 그렇게 불빛 없는 곳을 찾다가 골프장으로 가게 되었고, 저 장소에서 물과 반사되어 별빛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찍고 그 장소가 너무 맘에 들어서 친구들을 모아서 서로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풍경이 조형물과 어우러져 구름의 움직임이 돋보일 듯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Q. 선정된 사진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사진을 보내 주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학교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고 그동안 찍어왔던 사진이 하나같이 모두 예뻤기 때문에 하나만 올리기 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 모두 올려서 선정되기를 바랐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나 예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우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Q.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카메라는 어떤 것을 쓰시나요?

평소에도 학교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괜찮은 장소나 구도, 물체가 보이면 일단 찍고 봅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이 깊은 것 같네요.^^ 제가 찍은 사진은 모두 휴대폰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카메라만큼이나 잘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더 전문적인 카메라를 사용해 보고 싶네요.

Q. 사진을 잘 찍는 본인 만의 팁이 있을까요?

사진을 찍기 전 어디를 찍으면 예쁘게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밤하늘만 찍기 때문에 별만 보이면 심심하니 사진을 찍을 때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팁이라면 팁인 것 같네요. 사진을 찍을 때는 RAW 파일로 찍어 보정하면 더 예쁘게 나오는 것도 팁 중에 하나에요.

Q. 저희 JR 사진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상품이 욕심이 났어요. 제가 찍어 왔던 사진이라면 분명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죠. 하지만 무조건 상품에만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중원대에도 꽤 예쁜 장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Q.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교를 많이 즐기지 못하는 신입생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잠깐이나마 중원대를 간접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촬영한 곳의 위치와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저는 평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장에서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응모한 사진 역시 운동장에서 찍은 거고요. 평소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다른 동기들과 축구를 자주 합니다. 매번 축구하러 나올 때마다 학교 건물 뒤로 넘어가는 노을 빛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말고도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이 취미이다 보니 아름다운 배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노을이 지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서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노을이 지는 모습을 촬영해보고 싶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20학번 박원규

Q. 사진을 잘 찍는 본인 만의 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구도로 여러 장 찍어보고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고릅니다. 인스타에서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많이 보고 어떤 구도가 예쁜지 알아보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웃음)

Q. 저희 JR 사진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풍경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제가 맘에 드는 사진도 꽤 있어서 이런 사진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JR에서 사진 이벤트를 개최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 제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진 이벤트가 많이 있었으면 싶네요!



Q. 촬영한 곳의 위치와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저희 중원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전투기 모형 쪽에 군인 모형과 카페테리아 쪽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았습니다. 항공운항학과가 있는 대학으로써 전투기나 파일럿이 돋보여서 찍게 되었고, 학교 건물이 크고 웅장해서 밤에 보면 또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담게 되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
20학번 김현우

Q. 참여자들 중에 가장 독특한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사진촬영을 하신 거죠?

파일럿 사진에 생긴 선은 보정이나 그래픽은 아니에요.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 플래쉬로 모형 뒤에서 윤곽선을 따라 그려 줬습니다 그러면 사진에 저런 식으로 빛의 잔상이 남게 돼요!

Q. 사진을 잘 찍는 본인 만의 팁이 있을까요?

평소에 사진 찍는데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모전 참가작품이나 해외 포럼 등에서 멋있는 사진을 보면 나도 저런 사진 찍는 걸 연습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Q. 저희 JR 사진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밤하늘과 학교 건물의 조합이 매우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 카메라를 들고 학교 사진을 자주 찍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JR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꼭 멋진 사진으로 제 사진들을 알리고 싶어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정되신 분들을 통해서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잘 나오는지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촬영을 하면서 학교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벤트라 좋았습니다!



Q. 촬영한 곳의 위치와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여자 생활관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폴라로이드로 촬영을 했어요! 그다음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모아 찍어봤어요. 저는 1차에만 기숙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기숙사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동기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본관 앞에서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총학생회 분들이 날려 주신 비눗방울이 너무 예뻐 보여서 비눗방울이 사라지기 전 얼른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경찰행정학과
20학번 박세은

Q. 사진이 너무 생기가 있어 보여요! 평소에도 이런 밝고 생기 있는 사진을 찍으시나요?

이렇게 밝은 사진이 나온 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풍경 위주로 사진을 찍는데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 사진을 찍던 날에는 날이 너무 맑고 따뜻해서 운이 좋게 생기 넘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사진을 잘 찍는 본인 만의 팁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중에서 풍경 위주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요.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떻게 찍으면 사진이 어떤 분위기를 담아내는지 알게 되었어요.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것이 저의 작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저희 JR 사진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교를 1차 기간만 있게 되어서 학교에서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기 아쉬웠는데 마침 사진 이벤트를 연다는 게시물을 보고 저의 추억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이벤트에 대한 소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벤트도 없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기간이 매우 짧아서 학교에서의 추억이 별로 없었는데 이 이벤트를 통해 학교에서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 생기고, 그 추억을 많은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숨은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 2탄

이곳은 이용해봤니?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우분들! 저번 중원대학교 학보 제25호 숨은 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1탄 '나만 따라와! 중원대학교를 안내할게' 를 이어 숨은 스팟 및 편의시설 소개 2탄 '이곳은 이용해봤니?' 로 돌아왔습니다. 1탄에 이어 2탄에서는 1탄 이후 변화된 중원대학교 곳곳의 장소 및 학생들이 잘 몰라 이용 못 하는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용하러 가보실까요?

김현우 기자 deweykim2001@gmail.com

기숙사 가는 길에 신규로 오픈 한 소담소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스X벅X 급 카페! 매일매일 새로 채워지는 다양한 빵 들과 풍미 있는 원두를 사용하는 소담소담!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료 와 핫도그나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매일 신선하게 갓 만드는 다양한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격마저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소담소담에 가셨을 때 소시지 빵이 남아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편안한 공간 소담소담 쉼터



이마트24 편의점이 이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학생들이 소담소담이나 이마트24에서 구매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쉼터를 오픈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쉼터는 공간이 작고 테이블 수도 별로 없어서 점심 저녁 시간에 앉아 있기 힘들고 과제를 하기에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이번 쉼터는 공간도 정말 넓고 앉아 있을 책상도 많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 1인석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난 뒤나 과제를 해야 할 때 커피 한잔하면서 자기만의 여유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마트24 (중원대학생회관점)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 및 이전 한 이마트24! 기존에 있던 이마트24 보다 공간도 넓어지고 상품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정식 애플 액세서리 취급을 하면서 애플 사이트 정품 가격과 동일하게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점! 만약 애플펜슬을 구매하려고 하였다면 밖으로 나가야 하고 택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플 용품을 구입하고자 했던 학생이라면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기존에 없던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선택에 폭도 넓어졌습니다.

하루 세끼 새로운 메뉴로 준비된 도담도담







조식, 중식, 석식 하루 세끼 식사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며 중식의 경우 두 가지 메뉴 중 한 가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배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맛도 좋고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기에 제격이죠. 또한 조식의 경우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매일 새롭고 다른 메뉴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고~오급진 식사의 품격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도담도담과 카페테리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에서는 고급스러운 요리를 선보인답니다. 물론 학식에 비해 2~3배 비싼 가격 이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음식 퀄리티가 높고 가끔 맛있는 음식이 당긴다면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추천 합니다!

중원의 오랜 자랑 카페테리아







"학식 먹을래 카테가서 먹을래?"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학식도 맛있지만 학식이랑 늘 경쟁 중인 카페테리아! 중식, 양식, 한식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중이고 한식의 경우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육회 비빔밥이 나오는 날은 재료 소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좋아요~ 학식보다 조금 비싸지만 햄버거 세트 가격 정도에 먹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음식! 메뉴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답니다.

말산업학과도 있고, 교양수업도 있는 승마장





2020년 7월 22일에 개장한 중원대학교 승마장 승마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말산업학과의 실습을 목적으로 중공 및 개장했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공간도 넓고 이쁜 말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산업 교양 수업을 들고 기회가 되면 학생들도 실제로 승마를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승마에 관심 있다면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승마라는 스포츠가 조금 더 대중화 되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문자들이 편하게 칠수 있는 중원 CC





우리 학교 본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골프코스! 중원CC입니다. 파3의 스몰 사이즈 필드이지만 중간에 총 두 번 드라이브를 잡을 수 있는 파 4 코스도 있으며, 생각보다 넓고 카트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닌 본인이 직접 캐디백을 끌고 다니면서 스코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숏게임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필드입니다. 또한 필드 운영을 안 하는 날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 이른 아침에는 골프 코스를 따라 연결돼있는 산책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넓고 걷다 보면 웅장한 학교를 볼 수 있죠~ 또한 학생의 경우 필드 그린피가 8000천 원, 카트 대여 비용은 무료!! 이번 기회에 산책도 해보고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골프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방학을 알차게 보낸 학생들이 추천해주는

슬기로운 방학생활

저번 방학을 알차게 보내신 학우분이 하신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의 대학교 방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어떻게 방학을 알차게 보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주효인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주효인입니다.

Q. 방학 때 무엇을 하며 알찬 방학을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방학의 목표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선배님의 추천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Q.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라는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시험이고, 급수도 1급과 2급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험 형식은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으로 나눠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시험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6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총평균 60점이상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실무이며 시험방법은 문제지에 나온 지시사항대로 엑셀과 액세스 파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기시험 시간은 과목당 45분으로 총 90분이 주어집니다.

Q.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겨울 방학 때에는 마냥 유명한 교재만 사서 무작정 풀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 자격증에 대한 합격 정보를 검색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결과로 저처럼 무작정 교재를 사서 바로 푸시는 것보다는 네이버 전자 문제집 CBT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각 연도 별로 출제된 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보시는 것을 더 추천 드립니다.

Q. 방학을 알차게 보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1학년 방학 때에는 너무 생각 없이 보내서 속상한 마음이 정말 컸고, 후회되는 방학을 보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목표를 잡고 친한 선배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해서 지킬 수 있는 저만의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방학을 보낸 거 같아요. 확실히 방학 기간도 체감상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개강 후에도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먼저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수집하여 그걸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을 준비하기에 앞서 어떻게 준비하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격증에 맞게 목표를 잡고 끈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계획을 이루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 학기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알차게 보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학과
19학번 이도경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의료보건단과 대학 단대장 보건행정학과 19학번 이도경입니다.

Q. 방학 때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나요?

저는 방학에는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방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방학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번 방학 때에는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냈습니다.

Q.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공모전에 도전을 해봤는데 공모전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하기 부담스러운 학우분들은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과 같이 다양한 공모전에 팀을 꾸려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들이 많이 줄었는데 혹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이 줄었지만 저는 그만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이 줄었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대외활동 이외에 활동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 괜찮아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선배님께서 추천하시는 방학 활동들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앞에서 말한 공모전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공모전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공모전에 지원하면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방학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방학 때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서 꿈을 키워 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을 한 번 열심히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호학과
20학번 박은빈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이고 현재 간호학과 학생회에서 학술 국장을 맡고 있는 박은빈입니다.

Q.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방학을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열심히 봉사활동 다니자는 계획을 우선 세웠습니다. 의료 분야 쪽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련 활동 또는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참여했는데요. 학기 중에도 틈날 때 잠깐씩 찾아보고 있는데 단일이 아닌 연속해서 활동해야 하는 봉사가 많아서 신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하지 못했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우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줄기도 했고 요양원 같은 경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거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봉사활동 사이트를 매일 확인해 보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코로나 관련 열을 재주거나 줄 세우기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할 때 어려움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Q. 혹시 그 계획을 따로 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우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간호학과의 필수 요소인 토익, 봉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은 제스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Q. 방학을 알차게 보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뿌듯함? 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로 확실히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이 많이 줄었는데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까지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기도 하고, 봉사활동 사이트를 매일 찾아서 활동해 뿌듯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께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5월은 많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선생님 및 교수님들께 가장 의미있는 날은 '스승의 날'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 을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회가 없어서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의 감사함을 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모두가 어려운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 가실까요?

최민경 기자 peyy0520@naver.com



간호학과
20학번 유현욱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재학중인 2학년 유현욱이라고 합니다.

Q. 본인이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작년 1학년 때 들었던 PECC 수업의 알렉스 교수님에게 지금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제가 없었고, 시험도 수업 시간 동안 만든 에세이를 완성시켜 업로드하면 되었으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강의를 진행하셔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결석에 관대하셨는데, 이러한 강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셨습니다.

Q. 그런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려는 교수님들과, 같은 수업 내용을 반복하지만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직업 정신이 투철하게 강의를 해오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에는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과
20학번 유혜빈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유혜빈입니다.

Q. 본인이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진영 교수님의 생리학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대면이었지만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수업에 늦었을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친절하게 왜 늦었고 다음엔 늦지 말라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피피티 자료들도 이해하기에 좋았고 직접 쓰고 그리시면서 설명해주셔서 어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그려주셔서 좋았습니다.

Q. 그런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는 조진영 교수님, 수업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흥미가 생기도록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또 교수님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고 싶습니다! 꼭이요!



간호학과
21학번 임예구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간호학과 임예구라고 합니다.

Q. 본인이 들었던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양 교수님의 수업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했던 교수님은 '삶과 윤리' 수업을 해주시는 황연화 교수님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가피하게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친구에게 저의 상황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통해 들은 게 아닌 다른 학생을 통해 듣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다음 수업시간 때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며 걱정을 해주시던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Q. 그런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이라 고생이 많으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학과
20학번 홍지완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산업학과 2학년 홍지완입니다.

Q. 본인이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1학년 때 들었던 '인체구조와 기능'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과목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비대면 수업으로 제대로 이해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지만 직접 수업을 들어보니 대면 수업과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교수님을 보고 저도 힘이 났던 수업입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수업이라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그런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이 교수님들도 처음이셨을텐데 최대한 학생들이 편안하고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장은지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장은지입니다.

Q. 본인이 들었던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양 교수님의 수업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듣고 있는 백순기 교수님의 '뷰티헬스케어' 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대면 수업 속에도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엄청 밝은 목소리로 수업을 이끌어나가주시고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 유도도 해주시면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Q. 그런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밝고 활기차게 수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즐겁고 참여할 수 있는 교수님 수업들으면서 힘내서 최선을 다해 교수님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21학번 정지은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1학년인 정지은입니다.

Q. 본인이 들었던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양 교수님의 수업이 있을까요?

저는 '시민정신과 사회봉사'라는 교양과목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학생들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거의 매주 시청각 자료를 직접 찾아서 학생들의 이해의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Q.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수업이 었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선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20학번 원동민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2학년 원동민입니다.

Q. 본인이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간호학실습 김종임 교수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대면이라 실습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많았고 수업에 지장이 있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무거운 장비도 직접 들어서 캠으로 보여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수업이었습니다.

Q.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비대면으로서 실습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매 시간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간호학과
20학번 박현서

Q.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0학번 2학년 B반 과대표 박현서입니다.

Q. 본인이 비대면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가장 감사했던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김종임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기본간호학실습 1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비대면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질 높은 수업과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셔서 실습 수업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우리가 알려줄게 따라와!

수시 면접 팁& JR의 응원



예비 22학번 친구들 주목!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2022 수시도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입시 역시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힘듦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수시 면접 TIP을 가지고 왔어요.

사진출처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윤지현기자 apashf01@naver.com

1. 무조건 웃어라!



면접은 질문의 대답만 잘 해서 붙는 것이 아니에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입니다. 이는 즉, "무엇을 말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뜻이죠. 면접 때는 항상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이 면접 합격으로 가는 FREE PASS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2. 답변은 간결하게!



답변의 길이는 약 40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교수님들은 수험생 전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치세요.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결하게 요점만 말을 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고 듣기도 편하답니다. 혹시 나의 답변이 너무 긴가? 싶으면 시간을 재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 면접은 자신감!



면접은 자신감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거나, 아예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틀린 답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목소리가 작아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당당하게 틀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 전 연습은 필수!



면접 전 많은 면접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동영상 찍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실제 면접인 것처럼 답변을 하면, 몸이 흔들린다거나, 말이 떨린다거나, 웃음이 어색하다거나 등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처음부터 카메라가 부담스럽다면, 인형들을 세워놓고 연습 시작해보아요!

5. 교수님과 아이컨택!



면접은 교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면접도 똑같아요. 교수님의 눈을 보면서 부드럽게 답변하는 것! 계속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면 삼각형을 기억하세요. 왼쪽 눈을 보고, 미간을 보고, 오른쪽 눈을 보고 삼각형을 그리면서 보면 편안하게 아이컨택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 명의 교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한 명당 5-7초씩 아이컨택 하며 여러 명의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아이컨택을 한다면 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겠죠?

6. 기출&예상 질문 체크는 필수!



작년, 재작년 면접 기출문제와 올해 예상 문제들을 중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만들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예상문제와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는 편이며, 미리 만들어둔 답변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가져다줄 거예요.

제26호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2022년, 새로이 여는 학과를 소개 합니다!

중원대학교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 이라는 특성화 목표에 맞춰, 학사구조 개편 및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및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현장실습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3개 학과를 소개합니다!

이현복 기자 ne3h3b@naver.com

AI의료공학과



학과소개

AI의료공학과 학생들은 1, 2학년에는 의공학의 공학적 기초 및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3학년부터는 임상데이터에 대한 분석기술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예측기술을 익힘으로 공학과 의학 그리고 임상데이터를 결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응용분야를 배우고 진단·치료·예후·재활 분야의 캡스톤 및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의공학의 다학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AI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계, 지능형 로봇, 웰리스 및 바이오헬스 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첨단 융합연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현장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인재 양성
2.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적인 인재 양성
3. 다양한 분야와 학문에 대한 경험으로 통찰력을 가진 인재 양성
4. 공학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공학의 다학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웰리스 및 바이오헬스 전자, 바이오 신소재, AI 소프트웨어, 스마트 기계, 지능형 로봇 등 분야의 연구소 연구원 및 국내 외 기업에 취·창업할 수 있고,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한 국내 대형병원 및 보건복지부, 식약처 산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또한 AI 의공학 관련 국내외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운행체학과



학과소개

스마트운행체학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자율/지능 제어 분야를 선도할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스마트비행체란 기계 시스템인 공중 운항 비행체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됨으로 인간이 조종하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하는 미래형 비행체를 의미하며, 일반 자동차에도 확장 가능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초 및 핵심기술, 항공 유체/구조, 계측/제어 공학, 데이터공학, 자율주행 등에 대해 학습하여 자율운행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목표

1. 미래 스마트운행체 시대에 준비된 창조적 인재 양성
운행체와 ICT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두 분야의 창조적인 융합을 통하여 미래의 산업/기술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향상된 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2. 융합산업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이론과 실험 교과목을 기반으로 설계와 프로젝트 교과목을 통하여 스마트 운행체에 대한 제작과 운행시험을 실습함으로써, 실무형 지식을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현재 및 다가올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스마트 비행체를 만드는 분야인 UAM(도심항공교통), 육상 스마트카, 해상 스마트 선박 설계, 무인체 설계, 시스템 하드웨어 개발자, 로봇 개발자 등의 분야와 스마트 비행체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야인 해상 스마트 선박 개발자, 무인체 개발자, VR/AR 시뮬레이션 개발자, 빅데이터 처리 개발자,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 SW 프로그래머, 통신 네트워크 전문가, IT 컨설턴트 등의 분야에 취업을 하며, 국내외 스마트 운행체에 관련된 대학원 및 연구소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운행체를 개발하는 대기업(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IA등) 및 해외기업 취업, 관련 스마트업 기업을 창업을 통한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군사학과



학과소개

군사학과는 군사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고 미래의 전장 및 국가 안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국방)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첫째,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 안전보장학 등 제반 이론체계 정립과 실제적 군사학 연구의 중추적 역할조성에 기여

둘째, 학문체계 정립을 통하여 군사전문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키 위한 여건 조성

셋째, 군사학과 학생들의 군 간부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역량에 기여

교육목표

1. 간부 기본소양 함양 및 직무관련 기본원리 이해
2. 문무를 겸비한 정예 전투전문가를 양성
3. 강한 전사/ 최고의 군사전문가를 양성
4. 매년 장교 및 육·해·공군 부사관으로 전원 임관

졸업 후 진로

본 학과를 입학한 학생들은 1~3학년 매년 육·해·공군·해병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2~4년간 등록금을 지원받으며, 학사예비장교로 합격 시엔 소정의 장려금을 받게 되고, 4학년은 군별 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해 합격 시 육·해군 및 해병대장교로 임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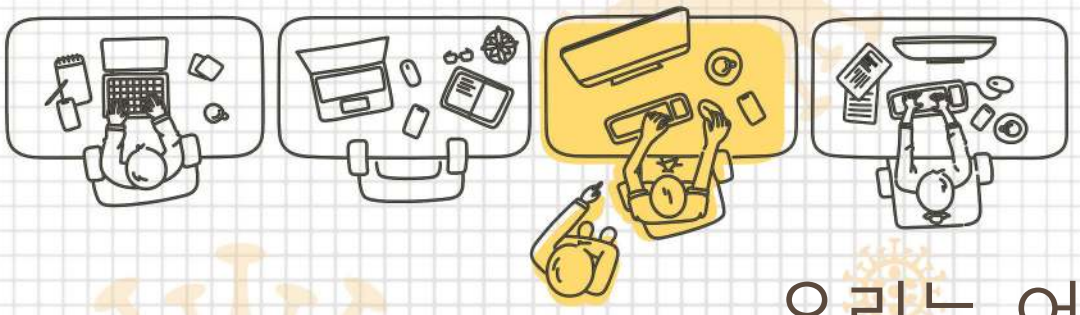
또한 개인의 희망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자, 군 전문상담사, 심리상담사 관련 수업을 이수하여 헌병 및 기무 부사관, 변역 준사관 등의 군 전문가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군의 문민화 및 국방환경의 변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군무원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박사 학위 취득 후 민간 안보전문가, 안보 관련 연구원, 일반대학 군사학 교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특전

1. 신입생 전원 생활관(기숙사) 입사 및 기숙사비 장학금 지원
2. 현역간부로 복무중 학부과정 편입 시 軍 장학금 지급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현역복무 중 편입자
3. 군 장학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4. 군(軍)에서 요구하는 과목 우선 편성(군 지정 11개 과목)
5. 군사 전문지식 이해/ 병영체험을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학습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국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학년별로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비대면 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학습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원대학교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Q.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학습권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간호학과
20학번 김영서



간호학과
20학번 박은빈



임상병리학과
21학번 이예진



항공서비스학과
21학번 유현서



간호학과
19학번 변다원



종교문화재학과
12학번 전성준

김영서 인터넷 사용이 서툰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으로 인해 강의의 질이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도 계셔서 지직거리고 수업이 도중에 끊겼던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박은빈 저 역시도 인터넷 접속 때문에 발생한 학습권 박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의 불안정으로 인해 강의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교수님의 음성이 밀려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이 시험 볼 때도 발생해서 멘탈도 많이 흔들렸고, 시험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형식의 강의는 아무래도 대면일 때보다 집중하기 훨씬 어려워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예진 저는 방대한 과제로 인해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이 줄어든 것도 힘겹게 느껴졌어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산만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따로 공부할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유현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제도 많아졌는데 제출 기한까지 스스로 찾아봐야 하고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변다원 저희 학교의 경우, 방역 기간으로 인해 주말에 보강해야 하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니 자습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박탈당한 학습권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전성준 수강 업로드 오류 및 지연으로 인해 수업 시간을 미준수한다거나, 지난 수업 자료를 그래도 재사용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문제도 있어요. 일부 수업은 유튜브나 방송국 자료 및 영상물을 그대로 인용한 적도 있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수업이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수업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으니 학생들의 이해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Q. 대학에서는 대학생에게 빼앗긴 학습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할까요?



간호학과
21학번 김용준



임상병리학과
20학번 김정연



간호학과
20학번 배병준

김용준 인터넷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박탈당한 학습권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만큼, 대학에서는 서버 안정화를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학교의 빠른 피드백 역시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구글 클래스룸 댓글 창 마련 등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연 실시간 강의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많아 녹화 강의가 더 좋다는 느낌도 들어요. 온라인 강의이므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 부분에서는 빠른 피드백과 소통의 창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성준 다양한 대학에서 거론되고 있는 등록금 감면 및 반환의 측면을 고려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탄탄하게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수업의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앗긴 학습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병준 실험 및 실습과 관련된 수업이라면 영상과 자료 화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직접 실습에 필요한 도구를 보여주신다거나 실시간 강의로 실험하는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강의해주시면 좋겠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ZOOM에 서툰 교수님들에게 학교에서 이용 방법을 안내 및 교육하거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Q. 대학생은 스스로 빼앗긴 학습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융합디자인학과
20학번 이지우



법무법학과
17학번 김현경



간호학과
20학번 김연주



경찰행정학과
16학번 김한진

이지우 저는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반 학생과 총학생회로 이루어진 학생 대표를 만들어 학교 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등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현경 위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설문조사 외에도 일반 학생들과 총학생회에서 온라인 미팅을 통해 학습권과 관련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해요! 그렇게 된다면 불만족한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의견 수렴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김연주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과의 소통을 위해 실제 대면 수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을 끄지 않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태도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었으면 해요.

변다원 조사해보니 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비대면 수업 및 학습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대학생 온라인 정책 간담회'가 개최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 많은 대학생과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도출해낸 의견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김한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것이겠죠? 학우분들과 교수님들 모두 감염병이라는 걱정 없이 한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웃고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제26호 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심청은 과연 효녀 일까?

고대소설 심청전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이야기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심청은 '효녀다',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의되고 있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서는 과연 심청을 효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찬반 토론에 총 76명의 학우분들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가장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8분을 모셔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38명 심청은 효녀가 맞다! V



연극영화학과 18학번 김미경

심청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갔을 아버지를 고려한다면, 심청의 선택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으므로 효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마음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 주는 것은 심청의 행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간호학과 20학번 박다인

당시 유교 사회였던 조선 시대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치 신앙처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하고 용왕의 힘으로 다시 환생한 심청이 지상으로 환생하고 곧이어 맹인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심청은 그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마음이 느껴져 부모를 진정으로 잘 섬기는 일인 효도의 의미에 누구보다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학과 21학번 이승비

저는 평소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지만, '과연 효녀 심청과 같이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인당수에 몸을 던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심청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인당수에 던졌다는 것 자체로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최영민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게 된 계기는 오로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행복을 기리고, 효를 다하고자 했던 효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대소설 심청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렇듯 부모를 위한 자식의 헌신적이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소설에서는 '효'라는 덕목을 알려주기 위해 다소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죽음'이라는 요소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죽음이 아닌 심청의 효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심청이 용왕의 도움을 받아 연꽃을 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를 애타게 찾다가 맹인 잔치를 여는 노력까지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 아버지를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되고 그리웠을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심청의 의지였다기 보다 가난과 장애 등의 심청과 심봉사를 둘러싼 사회적 요소가 모여 빚어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한 심청을 효녀라고 주장합니다!

S 심청은 효녀가 아니다! 38명

간호학과 20학번 권예지



아버지가 눈을 뜨고 내 딸이 날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음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는 죄책감에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짐으로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일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효심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전자공학과 20학번 이승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효녀로 유명한 심청이 심 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목숨을 바쳤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 '심 봉사는 자기 자식을 팔아 눈을 뜨려고 한 장님' 이라는 인식이 퍼져 마을에서도 심 봉사에 대한 대우가 매우 나빠졌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심 봉사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호학과 17학번 이 셈



저는 심청이 되려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내리사랑이 끔찍하게도 강한 유교 국가로, 옛 우화 중에 가난 때문에 배곯는 자식을 볼 수가 없었던 부모가 자신의 팔을 잘라 삶아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심청이 심 봉사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다 한들 과연 심 봉사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심청이 지상을 떠난 후 심 봉사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밥을 구걸하는 등 걸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청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진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본인의 희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먼저 생각해 본 후, 아버지와 상의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아버지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을 한 후에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21학번 장지원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보다 더할 것입니다. 즉, '딸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부모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모가 살아갈 이유를 자식이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심청이의 아버지인 심 봉사는 눈이 불편한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심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심청이 심 봉사를 위해 죽음을 다짐하는 것은 그간 심 봉사의 노력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심 봉사의 삶의 이유도 빼앗아가는 것이기에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중원대학교는 기부자님들이 출연해주신 발전기금을 학교 전략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에 감사드리며 중원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이란?

중원대학교 발전기금은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업 및 외부인이 중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비품, 현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종류

일반 기금	기부자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당 기간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기금
장학 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
지정 기금	학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등을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되는 기금

세제혜택

중원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34조)
법인 기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방법 안내

1 약정서 출력작성 (홈페이지 약정서 다운로드) ▶ 2 메일 또는 팩스 제출 (메일 : redguy@jwu.ac.kr / 팩스 : 043-830-8079) ▶ 3 기부금 납부

납부방법

방문납부	본교 본관 3층 홍보팀 (M1 309호), 043)830-8071
무통장납부	국민은행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은행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분할납부	기부자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통장으로 분할 납부(자동이체)

납부문의

전 화	043-830-8071
팩 스	043-830-8079
이메일	redguy@jwu.ac.kr
주 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홍보팀 (M1 309호)

기부자예우프로그램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 및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 기부금액	JWU Sponsor		JWU Honor			JWU Gold Honor	
		1백만 이상	5백만 이상	1천만 이상	2천만 이상	5천만 이상	1억 이상	10억 이상
중원대	감사 서신, 기부영수증 발급, 학보 발송	○	○	○	○	○	○	○
	골프실습장 이용권 증정	5매	25매	50매	1년 무료	3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본인)	1년 30%	1년 50%	1년 무료	2년 무료	5년 무료	평생 무료	평생 무료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학교시설 무료이용		1년	2년	3년	5년	평생	평생
	학교 다이어리, 달력, 학교 기념품 발송		○	○	○	○	○	○
	도서관 이용 ID 발급(본인)			○	○	○	○	○
	박물관 무료관람(본인)			1년	2년	3년	평생	평생
	감사패(장) 증정(총장명의)			○	○	○	○	○
	학교행사 VIP초청, 총장 초청 만찬					○	○	○
	특정실 명칭 부여							○
재단산하시설	강원종합박물관 입장권	6매	12매					
	가야호텔 일반 온돌룸 1박 2인 숙식 및 사우나권			○				
	가야호텔 가족 온돌룸 1박 2인 숙식 및 사우나권 또는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스탠다드룸 1박2인 숙식 및 사우나권				○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패밀리룸 1박 4인 숙식 및 사우나권					○		
	상주시 청화산 한옥펜션 1박 숙박권 또는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패밀리룸 2박 4인 숙식 및 사우나권						○	
	상주시 청화산 한옥펜션 1박 숙박권 및 제인병원 VIP 건강검진권 1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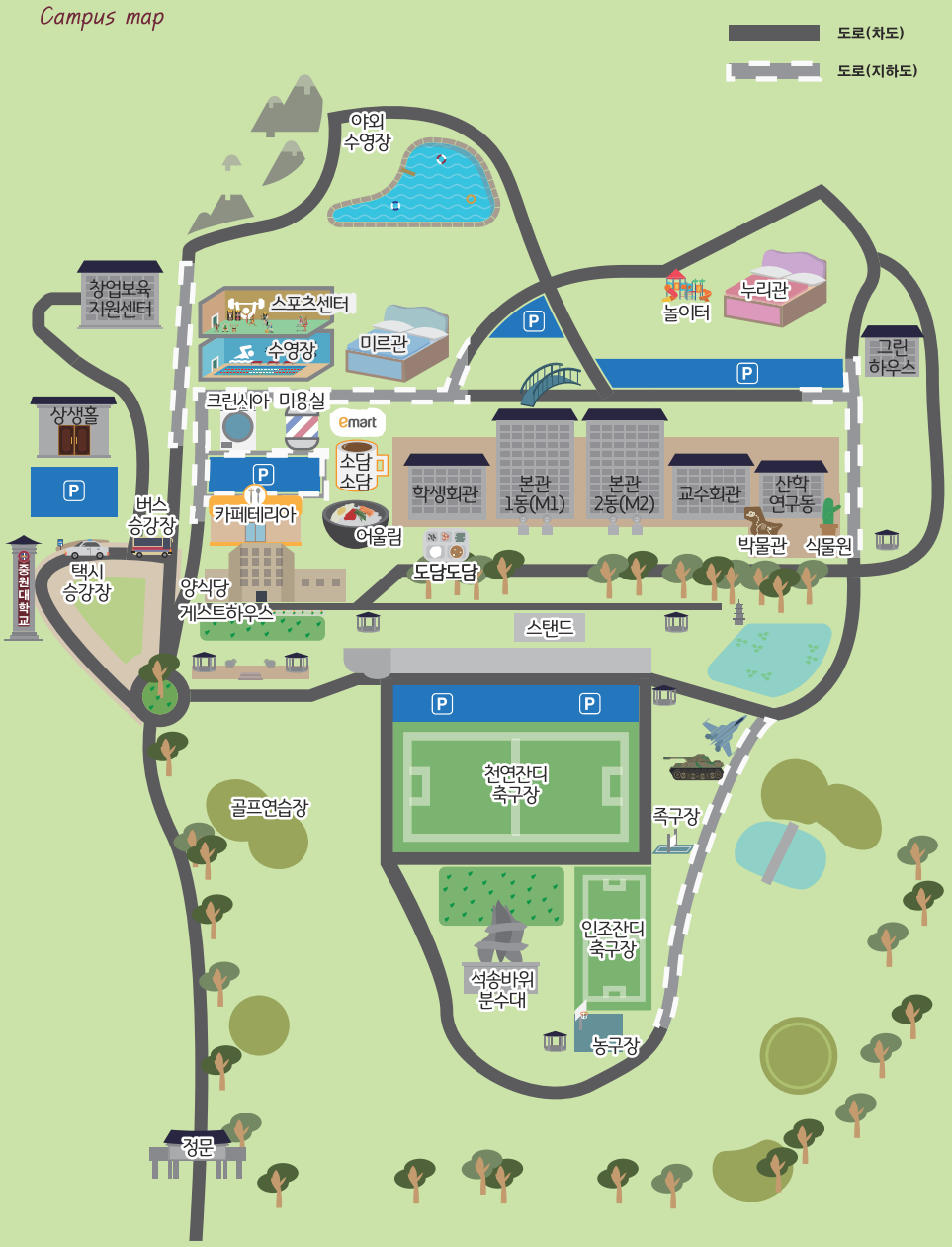
중원대학교 전경

Jungwon university campus map

1. 정문
2. 본관1동
3. 본관2동
4. 학생회관
5. 교수회관
6. 상생홀 (중강당)
7. 식물원
8. 스탠드
9. 게스트하우스
10. 카페테리아
11. 그린하우스
12. 미르관(남자기숙사)
13. 누리관(여자기숙사)
14. 족구장
15. 농구장
16. 산학연구동, 박물관
17. 천연잔디 축구장
18. 인조잔디 축구장
19. 야외 수영장 (중원풀)
20. 택시 승강장
21. 버스 승강장
22. 석송바위 분수대
23. 어울림, 도담도담, 소담소담, e마트

캠퍼스 지도

Campus map



본관 층별 안내

Main building floor by floor guidance

학생회관 (S)	본관 1동 (M1)		본관 2동 (M2)	산단동 (I,IR)
	대강당	11F	제2대강당	
동아리실	강의실	10F	강의실	
레저스포츠 실습실	강의실	9F	교수연구실	
교수연구실 계약학과 사무실	교수연구실	8F	교수연구실	
동아리실	강의실	7F	융합과학기술대학 사무실 의료보건대학 사무실	
총학생실, 단대실	사회문화대학 사무실 항공대학 사무실	6F	교양학부 사무실 대학원 사무실	산학협력단 에너지환경연구소
고시원		5F		공동기기센터 동물실험실 의생명보건연구소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지원센터 인성교육센터, 혁신교육지원팀 원스톱서비스센터 교육개발성과 관리센터	4F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사팀, 교무팀 기획팀, 평가팀 재무회계팀	
국제 교류원	홍보팀 잉글리쉬 카페 잉글리쉬 홀	3F		간호학과 사무실 의료공학연구소 충청IT융합/산업진흥센터
교운부, ATM 건강관리 센터 애니카피 센터	학생지원팀 입학팀, 소극장 평생교육원 직장인 예비군대대	2F	도서관,열람실	박물관
도담도담(학생식당)		1F		

